

보령시의회 제252회 1차 정례회 운영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 의원발의 조례안 3건 포함 13개 안건 원안가결,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리
- 시 산하 42개 부서·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 진행, 발전책 제시 돋보여
- 박상모 의장, “시민 만족과 보령 발전 위한 책임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해 달라”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가 제252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변화로 이목을 끌고 있다.

12일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시 산하 42개 부서·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 박상모 의장

1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13건의 안건을 심사해 전체 원안가결했다.

최은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지적장애에 포함되지 않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환경 개선과 활성화 지원을 통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됐다.

조장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정원문화 조성·지원과 정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전문가 양성을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정원산업 발전을 위해 제정됐다.



▲ 최은순 의원



▲ 이정근 의원



▲ 조장현 의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4일부터 22일까지 7차에 걸쳐 진행됐다. 김충호 위원장을 비롯한 11명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시정업무 전반을 살피면서 합리적인 비판과 효율적인 대안 제시로 이목을 끌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실시한 통영해상택시, 목포국제축구센터, 남해스포츠파크, 김천종합스포츠타운 견학을 통해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접목한 발전책을 제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 김충호 행감위원장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3일과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으며,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안건을 처리하고 정해진 일정을 마무리한다.

박상모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기와 수감부서 순서 변경, 요구자료 간소화 등 효율적 운영을 중심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평가,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며, “집행부에서는 수감 결과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해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보령시가 더 높은 곳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